

중국의 전자산업 동향

본 자료는 중국해관통계 연·월보 및 최신 중국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한 것임.(편집자)

본회 자료조사실

1) 중국의 총수출입 개황

가. 중국의 연도별 총수출입

WTO가 발표한 1998년 세계각국의 대외수출부역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1,805억 불로 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1,323억 불로 13위)

- 중국의 '98년의 총수출은 1,805억 불로 1.2% 감소 하였으며 총수입은 1,404억 불로 1.4% 감소
- '99년 8월누계로는 수출이 3.0% 증가한 1,187억 불, 수입은 19.2% 증가한 1,024억 불로 163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154억 불)
- 또한 중국의 '98년 전자산업 수출은 13.2% 증가한 355억 불, '99년 8월누계로는 17.5% 증가한 243억 불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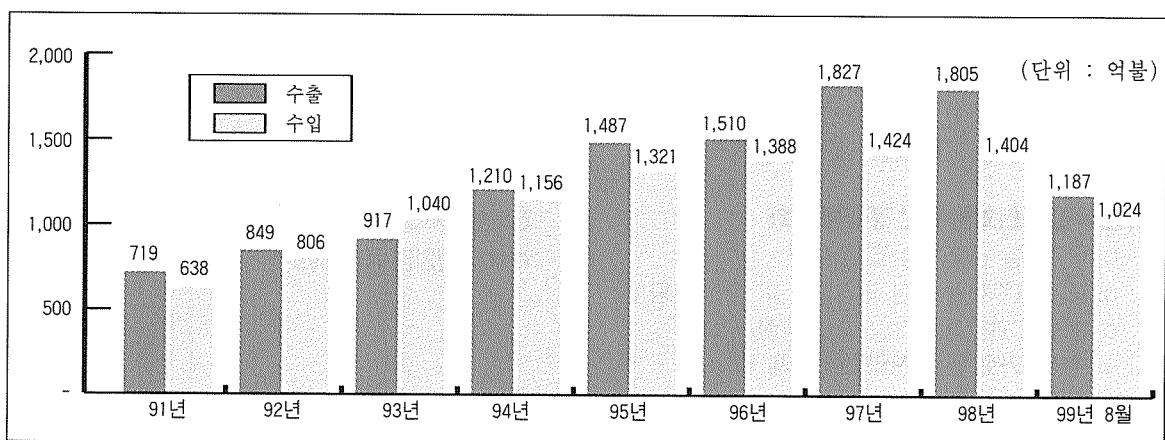
- 한국-'98년:387억불($\Delta 6.7\%$), '99년 8월누계: 315억불(27.5%)

이에 따라 중국의 총수출이 전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1980년: 0.9%, 1997년: 3.3%, 1998년: 3.9%, 1999년 8월: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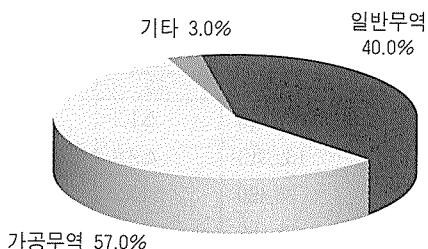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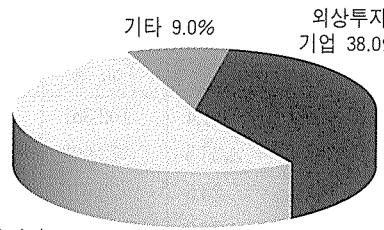
중국의 총수출이 '98년에는 대미국, 일본, EU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대ASEAN, 한국에 대한 수출은 아시아 경제위기로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99년 8월누계로는 ASEAN, 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홍콩으로의 수출은 큰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98년-대미국: 16.0%, 일본: 6.7%, EU: 16.0%, ASEAN: $\Delta 13.6\%$, 한국: $\Delta 31.0\%$
- '99년 8월누계-대미국: 12.4%, 일본: 5.7%, EU: 5.6%, ASEAN: 13.3%, 한국: 21.7%, 대홍콩: $\Delta 12.1\%$



자료 : 중국해관통계연감



나. 중국의 총수출입 구성 및 구조(98년 기준)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총 968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5.8%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수출주력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상투자기업은 692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또,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액은 1,045억 달러를 기록, 5%의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중국의 수출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지만 일반무역액은 742억 달러를 기록, 4.8%의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다.

다. 주요 교역대상국(98년 기준)

(단위: 억불)

국가명	교역액	국가명	교역액
1 홍콩	759	6 대만	205
2 미국	654	7 싱가폴	88
3 일본	562	8 러시아	54
4 EU	430	9 호주	54
5 한국	240	10 인도네시아	40

'98년 기준 한국은 중국의 5대 교역대상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교역액에서 아시아국가의 비중은 수출과 수입 모두 60% 이상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체수출에서 대아프리카(26.5%), 대라틴아메리카(15.5%)와 대북미(12.5%)로의 수출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중국 전자산업 수출입 동향

가. 부문별 수출입

'98년의 중국의 전자산업은 많은 업종이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PC, 휴대전화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기 및 통신인프라의 정비 등 서비스 분야의 약진에 힘입어 '98년 중국의 전자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13.2%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고 그중 산업용기기가 25.4%의 고성장으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99년의 중국의 전자산업은 가정용기기의 생산 및 수출증가, 컴퓨터 및 휴대폰 등 정보·통신산업의 고성장 및 경제성장 주도, 중국 사영기업의 수출입권 확대 등으로 '99년 8월 누계로 전산업의 수출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한 17.5%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96년도까지 급성장하였던 가정용기는 '97, '98년도에 이어 소폭의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전자부품은 '97년도까지 30%이상 급성장, '98년도 들어와 증가세가 주춤하였으나 '99년도에는 반도체, 축전지, 확성기, 이어폰과 헤드폰 등의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97년 부문별 증감률-산업용기기: 31.4%, 가정용기기: 11.3%, 전자부품: 30.5%)

'98년 중국의 전자산업 수입은 '97년도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건축정책, 국유기업의 수입감소,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및 설비수입 부진 등으로

<부문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 분	수 출				수 입			
	'98	%	'98. 8	%	'98	%	'99. 8	%
전산업(A)	180,516	△1.2	118,653	3.0	140,385	△1.4	102,387	17.5
	132,313	△2.8	89,313	2.8	93,282	△35.5	73,923	20.4
전자산업(B)	35,480	13.2	24,264	17.5	28,725	23.5	23,616	42.4
	38,669	△6.7	31,453	27.5	22,375	△24.2	19,997	42.1
가정용기기	10,584	2.8	6,915	6.6	1,845	△14.2	1,247	6.2
	5,438	△17.7	4,169	7.4	876	△47.7	772	33.7
산업용기기	14,457	25.4	8,711	13.1	11,322	37.8	8,781	44.9
	9,201	△4.7	9,192	59.3	5,410	△46.4	5,324	58.8
전자부품	10,439	9.8	8,637	33.6	15,557	18.6	13,588	45.3
	24,031	△4.5	18,091	20.4	16,089	△9.3	13,901	37.1
비중(B/A)	19.7		20.4		20.5		23.1	
	29.2		35.2		24.0		27.4	

주) 음영부분은 한국수출입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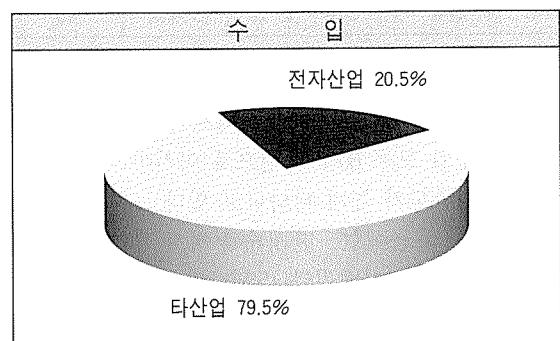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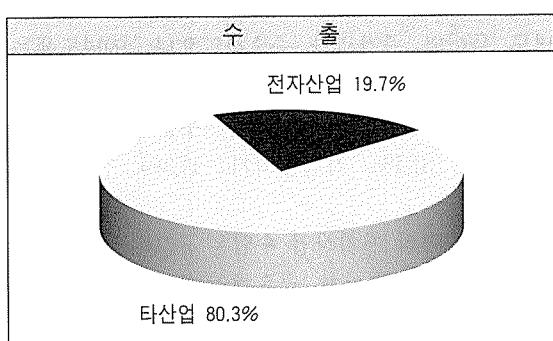
소폭 증가하였으나 '98년도에 들어와 회복세를 보이며 23.5% 증가한 287억불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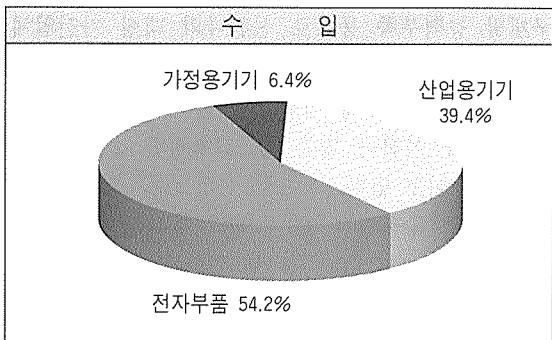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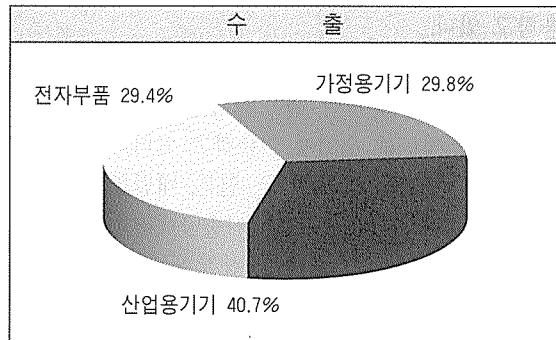
한편, '99년도에는 고급 가전·통신제품 수요 확대, 위축된 소비시장 회복, 중국 사영기업의 수출입권 확대, IC, 전자관 등 전자부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2.4% 증가한 236억불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전자산업 수입에서 약 55%('98년기준)를 차지하는 전자부품 수입이 '99년 8월 누계로 45.3% 증가한 136억불, 산업용기기가 44.9% 증가한 88억불로 전체적으로는 42.4% 증가한 236억불을 기록하였다.

나. 총수출입에서 전자수출입 비중('98년 기준)

'98년 중국 전자산업의 수출은 전산업에서 1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95년에 13.6%, '96년에 16.8%, '97년에 17.1%, '98년에 19.7%, '99년 8월 누계로는 20.4%로 증가 추세) 중국 전자산업의 수입은 전산업에서 2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5년에 13.9%, '96년에 15.8%, '97년에 16.3%, '98년에 20.5%, '99년 8월 누계로는 23.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이는 외상투자기업의 수입이 총수입에서 5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과 더불어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상황)





다. 전자산업 부문별 비중(98년 기준)

전자산업 수출에서 가정용기기의 비중이 감소하고 전자부품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 가정용기기: 32.9%('97년) → 29.8%('98년) → 28.5%('99년 8월)
- 전자부품: 30.4%('97년) → 29.4%('98년) → 35.6%('99년 8월)

또 전자산업 수입에서 전자부품의 비중은 증가하고 산업용기기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 전자부품: 55.4%('97년) → 54.2%('98년) → 57.5%('99년 8월)
- 산업용기기: 35.3%('97년) → 39.4%('98년) → 37.2%('99년 8월)

라. 부문별 동향

1) 산업용기기

중국의 통신산업은 정부가 통신 및 정보기반기술에 집중투자하여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노동집약적 상품인 유선전화기와 이동전화기를 수출하고 이동통신장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유선전화기를 8억불 규모

로 수출하고 교환기 및 반송통신기기를 각각 9억 불, 6억불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컴퓨터 시장은 인터넷의 사용이 급증('98년의 210만명 → '99년 6월 400만명 → 연말에는 1천만명에 육박)하여 향후 5년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시장의 하나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포화상태이거나 소비부진으로 업체간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나 컴퓨터 관련제품은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 컴퓨터시장에서는 중국업체들의 광범위한 유통채널, 빅바이어인 중국정부와의 유대강화,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외국업체들은 중국내 고급시장을 겨냥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중국의 최대 수출 주종품목의 하나로 수출은 주변기기가 주를 이루며 전년대비 9.3% 증가한 46억불의 수출을 구가, 국내시장의 확대와 함께 143.3% 증가한 17억불의 수입을 동반하였다.

중국의 휴대전화의 가입자수는 '98년 3월 말 1,660만명, '99년 3월 말에는 2,840만명으로 증가, 2000년에는 4,0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휴대폰 가입규모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이며 서비스 도입 10년째인 '98년 11월 말 2천 2백만명으로 집계되었다.

2) 가정용기기

중국의 가전산업은 소규모, 단순한 생산품종, 연

구개발 능력부족 등으로 선진국의 대형 가전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여 매년 가전업계의 시장 점유율 순위가 크게 바뀌고 퇴출 및 신규진출 기업의 수가 여전히 많은 등 전형적인 성장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전제품 수출액은 '99년 8월누계 기준 39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하였으며 그중 에어콘, 전자렌지, 세탁기, 냉장고 등이 증가 하였음. 수입은 1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했는데 이는 밀수단속 강화에 따른 정상경로를 통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가전산업생산은 '98년도의 경우 일본에 이어 2위의 생산대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수출역시 빠르게 성장(OEM수출→자기상표 수출, 소형가전위주→대소형 가전 병행, 저급품 위주→고부가 가치 제품위주)하여 중국 가전제품 수출의 수준은 한단계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

수입은 과거 밀수가 크게 성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어느정도 통제가 되어 전국 세관의 세수입이 밀수단속 성과 등에 힘입어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며 향후 밀수단속 인원 자질향상, 밀수사범 처벌강화, 관련제도 개선 등으로 강력한 밀수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가전시장은 C-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전자레인지, 비디오 CD등 거의 모든 품목에서 중국브랜드가 우세를 보였고 TV,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의 대도시 가정내 보급률이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자부품

중국의 전자부품 생산은 부품의 현지조달화로 AV기기에 대한 저항기, 콘덴서 등의 범용부품은 물론 IC, 이동통신부품 등의 특수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부품의 품질이 낮고 고가격 현상을 초래하여 결국 가전제품 전체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 LCD, CPT, CDT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시장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중국내 생산규모를 부단히 확대시키고 있으나 집적회로 및 다이오드·TR을 각각 46억불, 14억불을 수입하고 14억불, 7억불을 수출하고 있어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컴퓨터 수요가 '97년 3백 50만대에서 2000년 1천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증대될 전망이다.

마.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1) 수출

중국 전자산업 수출의 주종품목인 컴퓨터는 주변기기 위주로 수출이 행해지며 품목별로는 '99년 8월누계로 모니터가 14억불, 프린터가 6억불, HDD

(단위:백만불, %)

품 목	'98		'99. 8	
		%		%
컴퓨터	7,051	33.5	4,641	9.3
집적회로	1,132	21.6	1,357	108.7
C-TV부분품	1,211	4.8	859	9.7
유선전화기	1,290	36.1	816	27.3
소형전동기	1,034	5.5	748	16.0
다이오드, TR	759	12.1	720	62.7
음향기기	966	23.2	653	18.0
확성기	653	10.6	584	43.1
선풍기	701	△5.6	531	0.6
VTR	478	△2.7	445	44.5
C-TV	677	3.3	440	7.2
축전지	466	34.3	405	48.6
전자계산기	458	2.5	323	9.8

가 9억불, FDD가 2억불, CD Drive가 3억불로 구성되어 있다.

집적회로는 하이브리드와 모놀리딕이 주로 수출되며 하이브리드는 필리핀,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모놀리딕은 미국, 홍콩, 싱가폴 등으로 수출이 행하여지고 있다.

또, 유선전화기는 '98년도에 13억불, '99. 8월 누계로는 8억불인 가운데 유무선겸용 전화기가 5억불, 유선전화기가 3억불을 기록중이며 음향기기는 '98년도에 37억불, '99. 8월 누계로는 7억불로 이중 CD Player가 3억 3천만불의 수출을 기록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녹화용 비디오테이프가 2억불, PCB(4층이상)가 1억 5천만불, 고정식축전기기 1억 4천만불, 무선전화기가 4억불, 에어콘 1억 6천만불, 토스터기 2억불, 커피메이커가 1억불 등을 기록하였다.

2) 수입

중국의 전자산업 수입은 주로 범용부품을 제외한 IC, 이동통신부품, 전자관 등전자특수부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98년기준 전자부품 수입의 비중: 56%)

집적회로는 '98년도 48억불, '99년 8월 누계는 46억불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미국,

(단위:백만불, %)

품 목	'98		'99. 8	
		%		%
집적회로	4,790	21.5	4,609	67.7
전자관	1,630	19.9	1,784	112.1
컴퓨터	1,582	66.4	1,718	143.3
C-TV부분품	1,854	4.3	1,549	26.6
다이오드, TR	1,789	5.5	1,448	35.3
교환기	962	76.4	853	83.5
반송통신기기	718	518.0	640	111.8
축전지	382	27.8	359	54.6
소형전동기	407	17.0	314	22.0

홍콩, 한국 순으로 수입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자관은 CPT를 6억불, CDT 등을 9억불 규모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CDT의 경우 대만과 한국으로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전량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컴퓨터는 컴퓨터 본체를 주로 수입하고 주변기기에서는 프린터, HDD, FDD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짐계되었다.

이밖에도 이동통신기기 부품을 '99년 8월 누계로 3억불, 고정저항기 3억불, 이동통신중계기 7억불 등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짐계되었다.

3)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가. 대중국 전자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불, %)

구 분	수 출		수 입		무 역 지 수	
	'98	'99. 8	'98	'99. 8	'98	'99. 8
전산업(A)	11,944	8,551	6,484	5,306	5,460	3,245
전자산업(B)	1,338	1,366	1,272	1,429	66	△63
비중(B/A)	11.2	16.0	19.6	26.9		

전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97년도 35억불, '98년도 55억불 흑자이나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입감소율(35.9%)이 수출감소율(12.0%)보다 큰데서 비롯됐다.

전자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97년의 1억불, '98년의 6600만불 흑자이나 '99년 8월 누계로는 반도체 및 컴퓨터 등의 수입증가세가 두드러져 6300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1) 수출

전자관은 대중국 수출 주종품목으로 CPT와

<수출>

(단위: 백만불, %)

품 목	'97	%	'98	%	'99. 8	%
전자관	265	113.9	389	46.4	470	146.8
반도체	162	74.6	156	△4.1	149	50.5
컴퓨터	171	10.5	106	△38.1	133	119.5
음향기기	167	26.6	120	△28.3	112	30.5
축전기 및 부분품	38	63.2	36	△7.0	32	36.7
스피커 및 부분품	31	△20.2	23	△24.2	29	76.9
자기헤드	52	△9.5	40	△23.6	24	△20.8
VTR	49	37.0	28	△42.2	27	16.6
자기테이프	39	112.0	23	△41.4	18	10.7
소형전동기 및 부분품	30	△12.5	16	△45.4	19	60.8

CDT가 '98년도에는 비슷하게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99년도에 들어와서는 CDT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컴퓨터는 본체보다는 주변기기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며 FDD, CD 및 DVD Drive, 컴퓨

<수입>

(단위: 백만불, %)

품 목	'97	%	'98	%	'99. 8	%
반도체	167	87.2	263	57.1	364	191.1
컴퓨터	91	△11.3	83	△9.3	184	362.1
자기헤드 및 부분품	185	16.0	155	△16.3	128	31.0
음향기기	186	20.5	132	△29.0	106	37.3
소형전동기	111	41.6	112	1.5	104	42.9
축전기 및 부분품	49	139.6	25	132.9	48	33.8
스피커 및 부분품	29	1.4	14	△52.0	24	152.0
커넥터	27	68.2	18	△33.4	20	64.4
튜 너	38	△4.8	18	△53.7	16	10.8
스위치	25	16.1	16	△35.2	15	47.4

터 부분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도체는 집적회로가 주를 이루며 음향기기는 라디오, 콤포넌트보다는 라디오카세트, 녹음기, 음향기기부분품 등 위주로 수출하였다.

2) 수입

반도체는 TR 및 다이오드 위주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음향기기는 라디오카세트, 녹음기, 음향기기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컴퓨터는 FDD, HDD, 키입력장치 등 주변기기가 수입되고 자기헤드 및 부분품은 컴퓨터용 헤드 위주로 수입되고 있다.

4 중국시장의 동향

가. 고급 가전·통신제품 수요 확대

고급가전에 대한 수요가 상해, 북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에어콘,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평면 모니터, 대형 평면 C-TV 등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휴대폰이 높은 신장률을 보이며 반도체, 전자관 등이 이미 확보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나. 중국 사영기업의 수출입권 확대

'98년도까지 중국제조업체로서 자영 수출입권을 가질 수 있는 업체는 대부분 국유 및 대형기업들이었으나 정부가 올들어 기계, 전자, 섬유, 건자재 부문에 사영기업의 수출입 권한을 확대해 주었다.

다. 중국정부의 각종 소비 활성화 촉진책

금리인하, 공무원 임금인상, 이자소득세 부과, 도시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인상 등 중국 정부가 지

난 6월이후 실시하고 있는 민간소비 유인책에 힘입어 '98년도 하반기 아래 위축된 소비가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라. 수입 원자재 은행 보증금제도 실시

중국 세관이 지난 10월 1일부터 가공무역 관리제도를 변경해 외국투자기업을 A, B, C, D 등 4등급으로 분류해 그중 불성실기업(C, D등급)에 대해서는 종전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의 관세, 증치세 등의 면세혜택을 철회해 수입시 선 납부토록 하고 수출후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기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금 경색으로 중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원자재의 현지 구매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마. 원화가치 상승('98년 대비)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

엔고에 의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98년도 큰폭의 원화절하를 경험한 바이어로부터 가격인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 중국의 전자산업 구조조정

값싼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이나 조립, 가공 중심으로 가전산업을 육성시켜 왔으나 중국 전자업계가 '98년 하반기 부터 추진하여온 가전부문의 과잉설비를 축소하고 첨단 전자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 반도체 시장에 투자 가속화

중앙정부는 고기술 영역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정책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반도체시장으로 하여금 외국투자의 과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에 이어 아시아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기지로의 발돋움화를 추진중이다.

아. 전자업체의 대규모화 급진전

중국의 전자공업부가 조사한 「97년 전자공업연감」에 의하면 중국의 「백강기업」중에 통신·컴퓨터 업체들은 45개사에 이르고 매출규모가 50억 위안대의 기업수가 12개사로 전자업체의 대규모화가 급진전되고 있다.